

2월 4주 가정예배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천국은 마치 / 찬송가 545장

본문말씀 || 민수기 6:22-27

22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3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24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 주시며,

25 주께서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26 주께서 너를 고이 보시어서,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27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생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별된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실패하였습니다. 출애구기와 레위기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불순종의 삶, 그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끝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신실하신 분임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불순종의 삶이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늘 불순종하는 삶이지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경배하는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하는 생각 Ⅱ

(영아/유치)

하나님은 ○ 주시기를 원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유년/초등)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요.

(중고등/청장년)

1.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함께 드리는 기도 Ⅱ

주님, 우리 가정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불신앙 가운데 빠졌는데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며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품어주시며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 축복 기도 Ⅱ

(개인 감사 기도)

부족한 모습도 품으시며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부부 축복 기도)

사랑하는 우리 부부가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부부 되게 하옵소서.

(부모, 자녀 축복 기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자녀) ○○○가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Ⅱ